

제6회 외대학술상 당선작 사회과학부문

I. 머리말

19C 후반 이후 민족주의 철학은 우리나라에 많은 역사적 파장을 암겨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러한 파장을 헤쳐나온 뒤에는 그로인해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나타나는 제도변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해방직후는 불건적 전쟁과 침상화 기도, 경에 배관적 권리의 지배가 사라되었고, 평양 한 자주독립이 탈성되었으며, 민족적 지배가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고난속에서 그나마 산방으로 남았던 민족적 자각과 민족문화재활을 위한 시도는 국가권력에 강요하는 지하이데올로기 때문에 멀리났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민족이 읊나른 역사현실을 인식하기 위한 일은 이미 아니라졌다. 미구나 이론의 비판적 문제와 불행처럼 배운 학제적 문제에 현상학의 도순을 인식하고 그 해석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이고 학제적인 이론과 도출되는 충돌이 있다. 적어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